

# “몸에 좋은 햇 다시마로 건강 챙기세요”



완도군은 완도금일수협 위판장에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다시마의 풍년을 기원하는 초매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초매식은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다시마를 수협 위판장에서 첫 경매 전 다시마 생산 어민들이 참석하여 해양안전과 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함께 제를 올리고 위

판을 개시하게 된다.

올해 첫 위판 물량은 약 32톤으로, 위판가격은 1kg당 최저 6,800원에서 최고 9,900원까지 거래되어 예년보다 높은 가격추이를 보였다.

첫 위판 물량은 한해 위판에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생산어민과 중매인도 좋은 위판 가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완도군, 금일수협 위판장서 풍년기원 초매식**  
**첫 물량 32톤...kg당 6800~9900원까지 거래**

이날 초매식에 참석한 박현식 완도군수 권한대행은 “전국제일의 다시마가 예년보다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 대비 전복양식관리 및 어업재해보험 가입을 통하여 사전에 대비하여 달라며 당부하고, 완도전복소비촉진행사에 다함께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표하였다.

초매식이 열린 수산물보관시설은 2017년 5월에 준공되어 2천여톤의 질 좋은 다시마를 안정적으로 수매보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시마 채취는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지며, 작황은 전년 대비 섹택(품질)을 나타내는 윤기(윤기) 양호하고, 염집이 약 3.5m이상씩 자라 성

장이 좋은 편이고, 생다시마 작황은 예년보다 좋은 상태이며, 생산량은 잦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완도군은 올해 1,000여 어가에서 약 3,200톤을 위판 26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시마는 건강식품으로 일반적으로는 국물요리의 맛을 내는 식재료로 주로 쓰이며, 얇은 다시마가 국물이 빠르고 많이 나온다.

다시마의 성분과 효능은 알긴산과 라미닌, 칼륨이 풍부해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알긴산 성분은 장내의 발암물질을 배출시켜 대장암 예방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원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검정쌀 판매 활성화 나눔행사**  
**생활개선회원 검정쌀 제과·제빵 제품 홍보**

진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 동안 생활개선회 진도군연합회에서 검정쌀 가공제품 나눔·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고군면 가거리 일원에서 열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에서 진도군의 특산물인 검정쌀을 활용한 쿠키와 빵, 검정쌀 호떡 등을 직접 만들어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진도 검정쌀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검정쌀 제과·제빵 제품들은 생활개선회 진도군연합회원들이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검정쌀 가공 제품

을 새롭게 개발해 선보였다.

앞으로 검정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해 검정쌀 가공연구회 모임을 조직하고 상품화를 위한 자체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생활개선회 진도군연합회원들은 쿠키와 빵 등을 만들어 지역의 불우이웃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검정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 쌀 소비촉진을 통한 농업소득 5,000억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여수~순천~광양 광역 시내버스**  
**내달부터 60분 이내 ‘무료 환승’**  
**하차태그 후 환승시 1회 요금 면제**



표로 환승 시스템 구축사업도 진행해 왔다.

무료 환승은 하차태그 방식이다.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체크한 후 60분 이내 목적지 시내버스 탑승단말기에 체크하면 1회에 한해 요금 면제된다.

지난 1월 운행을 시작한 여수~순천~광양 광역 시내버스는 5월 현재 3개 시를 하루 5회 왕복하고 있다.

여수에서 순천까지는 여수시내버스 330선이 미평을 기점, 순천역을 종점으로 율촌면사무소, 연항마을 등을 경유한다. 여수로 향하는 순천시내버스는 960선이다. 제일고를 출발해 순천역, 여수공항을 거쳐 여수시청에 도착한다.

여수에서 광양은 여수시내버스 610선이 운행한다. 구간은 둔덕~쌍봉사거리~묘도삼거리~광양시청이다. 광양에서 여수까지는 광양시내버스 270이 광양농협, 석창사거리를 지나 여수시청까지 운행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농업인대학 및 농업아카데미 ‘후끈’**  
**친환경 유기농업과정 통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분석**

장흥군은 지난 18일 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농업인대학 및 농업아카데미 공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김광환 국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농업 발전방향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전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강인성 소장이 미래농업·농촌희망이야기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는 농업인대학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과정’을 통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MSL)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토양 관리와 병해충 방제, 유기농업자재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비 배 밭이나나라 채소, 마늘, 두류,

과수 등 다양한 작물을 선정해 교육을 운영한다.

농업아카데미 교육에서는 ‘농산물가공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 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농산품을 개발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11월까지 11과정 총 22회 교육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 저변 확대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김영모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대학 및 농업아카데미 교육은 이론과 현장 경험이 접목돼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장흥=김홍필 기자

**무안군, 도시농업 프로그램 성료**  
**남약주민 240여 명 참여...공동체 의식 제고**

무안군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8회에 걸쳐 삼향읍 남약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농업 프로그램에는 240여 명의 남약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먼지 정화에 효과가 큰 식물을 활용한 생활원에 교육과 양파 재배면적 급증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 향토음식인 양파김치 담그기 교육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간 교류와 화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건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도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9~10월에 하반기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관내 농촌교육·체험농장을 방문하여 진행되는 농업·농촌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등 남약주민 도시농업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의 도시농업교육은 남약 신도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존하는 상생교육으로 생활원에, 다양한 전통 음식 만들기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